

두둑... 문두드리는 소리가 울린다. 인간에게 삶의 보람이 있는 집이 생겨난 때로부터 문두드리는 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무수히 울리고있다. 오늘도 이 나라의 어느 가정에서나 울리는 문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는 이 땅이 무

# 문두드리는 소리에도 제도가 비낀다

것으로 하여 그리도 아름답고 따뜻한것인가를 전해주고 있다.

것은 없는가 하나하나 물어보며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스히 돌봐주었다.

언제인가 그의 집을 찾아 밤늦도록 대학입학시험준비를 하고있는 그의 학습지도도 해주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준 구역인민위원회 일꾼들이었다.

어제 이틀만이라 공부도 잘 배워주고 맛나는 음식이 생겨도 찾아와 안겨주던 고급 중학교 담임선생님, 설명회와 명절날이면 남편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동사무소 일꾼들이며 큰일, 작은 일 도맡아 나서는 다양한 이웃들...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는 생각하였다. 친부모에 비길수 없는 혈육의 정을 아깝없이 기울이는 고마운 사람들이 많고 많이 혼자자 아니라고.

독독! 딸랑, 딸랑!... 문두드리는 소리, 집주인을 찾는 정다운 소리는

## 사랑과 행복의 메아리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에 네명의 딸자식을 가진 부부가 살고있다. 어느날 저녁시간이었다.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안해인 랑옥란이 일하는 공장의 일꾼들이 들어서는것이였다.

보며 남편 정광철과 안해인 랑옥란은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2동 80인민반에서 사는 서성화녀성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서성화녀성에게는 부모가 없다. 그는 엄마라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어머니를 잃고 그후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결코 외롭지 않다. 하루에도 여러번 그의 집문을 두드리며 찾아와 친혈육의 정을 부여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이다.

어느날 문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평천구역인민위원회 일꾼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생활에서 애로되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시련의 나날더 자주 울리었다. 건국이래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는 엄혹한 방위위기의 나날 어디서나 제일 많이 울린것은 문두드리는 소리였다.

문을 열고 나가보면 눈물겨운 정정이 뜨겁게 안겨오는 정다운 목소리가 울리었다. 《열이 나는 사람은 없습니까? 몸이 불편하면 연락해 주십시오.》 《할머니, 이 약을 받으십시오. 꼭 제시간에 정해진 량만큼 잡수셔야 합니다.》 《식량과 부식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 아침에는 기초식품과 생활 용품을 안고 인민반장이 찾아오고 점심에는 의약품과 안고 의료일꾼들이 찾아왔다. 저녁에는 식량과 부식물을 공급하려고 구역의 일꾼들이 찾아오더니 늦은 밤에는 검병검진을 위해 담당 의사가 또 찾아오고... 이런 일과는 매일과 같이 반복되

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각급 당, 정권기관의 일꾼들, 의료일꾼들이 어려울수록 인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어머니당의 격려와 보살핌의 손길을 안고 집집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어떤 때든 저 하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각급 당, 정권기관의 일꾼들, 의료일꾼들이 어려울수록 인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어머니당의 격려와 보살핌의 손길을 안고 집집의 문을 두드렸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한 로동자는 자기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어려움을 겪는 아들딸들과 고락을 함께 하려 마유쓰는 어머니의 정깊은 목소리같았다고 자기의 심정

남조선에서

늘어나는 '중년층 고독사' 그 쓸쓸함에 대하여

고독사는 청년 고독사, '고독사'부터 돌봐야  
'올해 몸부림치던 그 순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려줬다면...'

전통시장 안전관, 가족 분리된 삼의 의지 잃고 극단적 선택  
사건자들에 돌봄 고독사 원인에 맞춘 복지정책과 사회 관심 필요  
순흥명 달강구역 연강리 (work@naver.com)

## 함께 웃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가정

사람들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공화국에서는 혈육이 아닌 남의 자식들을 맡아 키우며 친부모의 뜨거운 정을 바쳐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운 10년 세월 나라의 기둥감으로 훌륭히 키워가고있는 모수식 리공장 전영실종업원의 소행도 남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 일처럼 가슴아파하며 사랑과 정을 바쳐가는 미덕의 대화원에 피어난 한말기의 아름다운 꽃이다.

9년전 11월 전영실은 공장의 한 종업원이 세상을 떠난 가슴아픈 소식을 전해 듣고 밤잠도 못 자지 못하였다. 그 종업원의 자식들인 주호와 유경이의 나이는 11살과 8살. 한창 부모의 옷자락에서 어리광을 부려야 할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밝혀와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며칠째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남편에게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도 그의 의견을 적극 지지 해주었다. 의동팔도 동생들이 생겼다고 무척 좋아했다. 이튿날 아침 그는 공장의

지배인을 찾아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오. 동무의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건강하지 못하지 않소. 그리고 지금 많은 종업원들이 저처럼 그대들을 자기 집에서 키우겠다고 제기하고있으니 마음을 놓소.》 이렇게 말하는 지배인에게 전영실은 딸 하나밖에 없는 자기가 오누이를 키우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의 마음에 감동되어 공장에서는 주호와 유경이를 그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려 전영실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우리 아들딸이라고. 그의 미거는 단순한 동정이나 애정에서 출발한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돕고 이끄는것이 국풍으로 되고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만이 지닐수 있는 숭고한 인간애였으며 뜨거운 동지적사랑과 의리심의 발현이였다.

그의 집문을 두드렸다. 이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에서 주호와 유경이는 자기들이 안겨사는 품이 얼마나 넓고 따사로운가를 깨우쳐 느끼었다. 하기에 주호는 몇해전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조국보위초소로 떠났다. 유경이도 얼마전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있던 초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유경이가 사회생활의 첫발을 떤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주고 한식술처럼 사진을 찍었다. 그날 유경이는 그 사진에 또박또박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한다. 한집안식솔! 거기에 사는 사람들모두가 하나의 대가족이요, 이 세상에서 돌도 없는 은혜로운 품에서 사는 더없는 궁지가 비껴있고 고마운 제도를 위해 청춘시절을 아름답게 수놓아갈 맹세가 어려웠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석암동

## 인민의 마음속에서, 생활속에서 백리내린 국기

이름난 독창가수로주만. 《맛근요, 맛아요.》 《축복 받은 나의 삶!》 이 노래를 부른 동무이요?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소리에 그제야 나는 그가 TV에서 자주 보아왔던 청년임을 알아차렸다. 어느새 청년의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축하와 행복을 바란다며 그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는 상경으로 《유쾌한 혼전》이 일어났다. 기적소리를 울리며 전동차가 역구내에 들어서 정차했지만 사람들은 오를념하지 않고 내

린 사람들은 어디로든 무슨 영문인가 하여 모여들고... 그녀다나니 전동차의 출발이 잠시 지연되었다. 장애자와 신통 떠나지 못하는 전동차! 순간 뇌리에 장애자와 떠나지 못하는 전동차라는 이 말속에 비껴있는 또 하나의 화폭이 아른한 신문에 실렸던 글과 함께 문득 떠올랐다. 얼마전 서울의 지하철도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의 장애자권리에선보장을 요구하는 담승시위가 벌어졌고 그로 하여 여러 로선의 운행이 지연되었다고 한다. 그들의 지하철도담승시위는 무려 36번째. 호소나 청원도 해보고 가슴치는 절규도 터쳐보았으나 《정부》는 들으려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협박과 차별, 싸늘한 태도가 그들의 가슴을 아르게 끓어올랐다. 장애자들이 기껏 할수 있는것

은 전동차를 일시 멈춰세울수 있는것뿐 점점 더해만 가는 불우한 생활지나 참기 어려운 고통을 멈춰세울수 없는것에 없다. 망발이라고 불행한 모습들이 땅우에서 하여 결코 달라질수 있다던가. 선전적장애가 있는 6살아들과 함께 극단적선택을 한

에게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수시로 내뱉는 멸시를 마주해야 하는 권리, 배척과 차별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야 할 권리만이 있을뿐이다. 지어는 장애자자식을 둔 어머니에게 《말춤》(엄마와 끈종의 합성어)이라는 혐오스런 딱지를 아무 꺼리낌없이 붙이고있다.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장애자들의 곁에 늘 머물러있다. 불편해하고 괴로워할수록 누구나 친형제, 친부모가 되어 그들의 운명을 보듬어주고 소원과 희망에 따라 재능을 꽃피워주는 품이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적주목이다. 남의 불행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며 도와주고 위해주는 미덕과 위풍이 차넘치는 사회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지어는 혈육도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사회-이국적인 대조말로 북과 남의 명암이 아닐수 없다. 깊어지는 생각을 깨며 전동차는 서서히 역구내를 떠났다.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축하의 손길이 떠밀려 장애자청년과 그의 안해는 전동차와 더불어 서서히 멀어져 갔다.

김태룡

이 금시라도 보이는것만 같아 하나하나의 제품생산에 지혜와 정열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너 김로동자는 랑홍색국기를 새긴 옷을 입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승명해진다고 말하였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국기는 단순한 국가상징물이 아니라. 그것은 인민의 운명과 참다운 행복, 영원한 미래가 실

려있는 목숨처럼 소중한 기복이다. 존엄성은 강국의 기강과 승결과 나뉘는 기복의 필연에 어려웠고 위대한 조국 김로동자는 랑홍색국기를 새긴 옷을 입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승명해진다고 말하였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국기는 단순한 국가상징물이 아니라. 그것은 인민의 운명과 참다운 행복, 영원한 미래가 실



《수필》 지하철도역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따스함이 결여된 사회, 장애자들의 고통과 우울, 상실과 괴로움의 상처를 가서줄기 같은 상처가 강그러져 버린 사회가 바로 남조선이다. 허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장애자들을 보라. 그들의 눈가에 언제 한번 서러움이 구슬처럼 맺히지 않으며 살기엔 막막해 가슴을 쥐어뜯으며 생선의 몸부림을 쳐본적이 있었는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따스함이 결여된 사회, 장애자들의 고통과 우울, 상실과 괴로움의 상처를 가서줄기 같은 상처가 강그러져 버린 사회가 바로 남조선이다. 허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장애자들을 보라. 그들의 눈가에 언제 한번 서러움이 구슬처럼 맺히지 않으며 살기엔 막막해 가슴을 쥐어뜯으며 생선의 몸부림을 쳐본적이 있었는가.

그들의 눈가에 언제 한번 서러움이 구슬처럼 맺히지 않으며 살기엔 막막해 가슴을 쥐어뜯으며 생선의 몸부림을 쳐본적이 있었는가.

김태룡